

nabo 경제동향 & 이슈

Economic Trend & Issues

NABO 경제동향 & 이슈

2009년 8월 17일 (통권 제 1호)

발행인 | 신해룡

편집인 | 박종규

발행처 |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발간등록번호 | 31-9700230-000679-06

www.nabo.go.kr

통권 제 1호

| 2009.8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창간사 •



국 제금융위기의 파고가 엄습하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범세계적인 정책공조에 힘입어 회복의 조짐이 있으나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경로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신용경색 해소,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축소,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출구전략 실시 시점과 정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재정건전성유지방안, 신성장동력 확충 문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내경제가 또다시 정상경로에서 벗어나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여타 국가에 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데 반해 산업 경쟁력 및 금융시스템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여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우리 경제는 작은 외부 충격에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외 현안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논의와 대응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경제현안에 관한 합리적인 분석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면한 최근 경제·재정문제에 관해 보다 신속하게 분석 내용을 제공하게 위하여 새롭게 『경제동향 & 이슈』를 창간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신속성보다는 심도 있는 분석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현안에 관해서는 조사분석요구서를 통해서만 개별적으로 의원님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최근 경제·재정현안에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경제동향 & 이슈』를 통하여 최근 현안의 분석뿐만 아니라 새롭고 잠재된 이슈를 발굴·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국내경기 진단과 회복양상 판단*

요약

1. 국내경기 저점 : 저점을 통과

- 국내경제는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국면에 접어 든 것으로 보임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9년 2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3개월 내지 10개월 후의 경기를 예고하거나 경기국면과 경기전환점예측에 이용되는 통계청의 경기선행지수가 2008년 12월을 저점으로 큰 폭의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는 상승국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수출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OECD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경기를 이끌고 있는 수출도 회복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2. 경쟁국과 경기회복세 비교 :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

-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 생산의 회복속도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것으로 나타남
 - 이는 첫째,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특히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로 소재업종(철강 및 석유화학 등) 수출환경의 부분적 개선
 - 둘째, 가전제품구매지원정책(중국)과 디지털TV 수요의 확대로 일부 전기전자부품의 수출여건 개선
 - 셋째, 구매 후 서비스(AS) 조건의 강화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자동차 업종) 상승
 - 넷째,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강화 때문임

〈우리나라 주요품목의 수출여건 개선〉

품 목	개 선 요 인
무선통신기기	-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2008년 : 25.3% → 2009. 2/4분기 : 31.2%
액정 디바이스	- 대형 LCD세계시장 확대, 2009. 1 : 25.5억달러 → 2009. 6 : 53.6억달러 - TFT LCD 가격상승(32인치), 2009. 1 : 163억달러 → 2009. 7 : 205억달러
반도체	- Nand Flash 가격상승(8G, \$/개), 2008. 12 : 1.16달러 → 2009. 7 : 3.68달러
철강	- 철강 가격지수 상승(CRU), 2009. 4 : 130 → 2009. 7 : 143
석유화학	- 가동률 상승, 2008. 10~11 : 70% → 2009. 7 : 98%
자동차	- 주요시장 점유율 상승(%) • 미국시장, 2008. 1~5월 : 5.0% → 2009. 1~5월 : 7.3% • 중국시장, 2008. 1~5월 : 6.4% → 2009. 1~5월 : 7.6% • 서유럽시장, 2008. 1~5월 : 3.1% → 2009. 1~5월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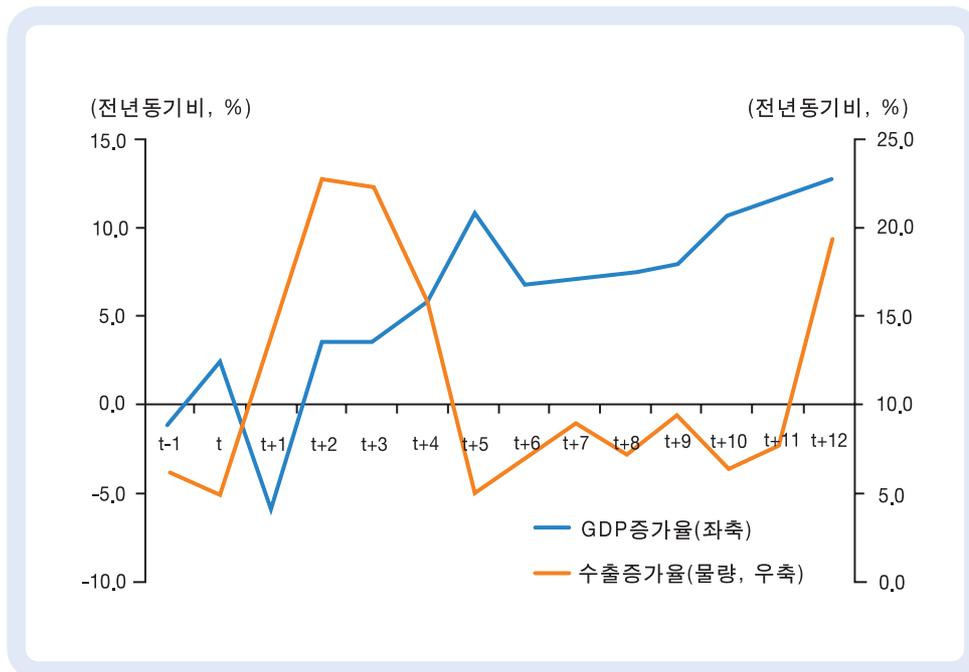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2009년 수출입동향, 2009. 7)

* 신후식(거시경제분석팀 팀장, Tel 02-788-3775) · 유승선(경제분석관, Tel 02-788-4658)

3. 국내경기회복 양상 : '루트형(√)' 상승형태 예상

- 향후 우리나라 경기회복속도는 경기회복 초기 단계에 비해 완만해 질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첫째,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지 못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수출여건 개선 속도가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임
 - 둘째, 금년 4/4분기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국들의 출구전략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임
 - 셋째, 우리나라 내수회복세는 수출에 비해 느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하반기 이후 재정의 집행여력 약화로 재정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향후 국내경기는 '루트형(√)' 경기회복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우리나라가 제 2차 석유위기의 영향으로 1980년 9월부터(제3순환 경기상승국면) 경험하였던 경기 양상으로 경기회복국면 초기국면에서는 경기가 급반등 하지만 이후 경기가 일정기간 완만히 상승하는 형태임
 -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으로 국내경기가 일시 회복된 후 점진적인 출구전략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됨

〈2차 석유위기(1980. 3/4분기) 이후 우리나라 경기회복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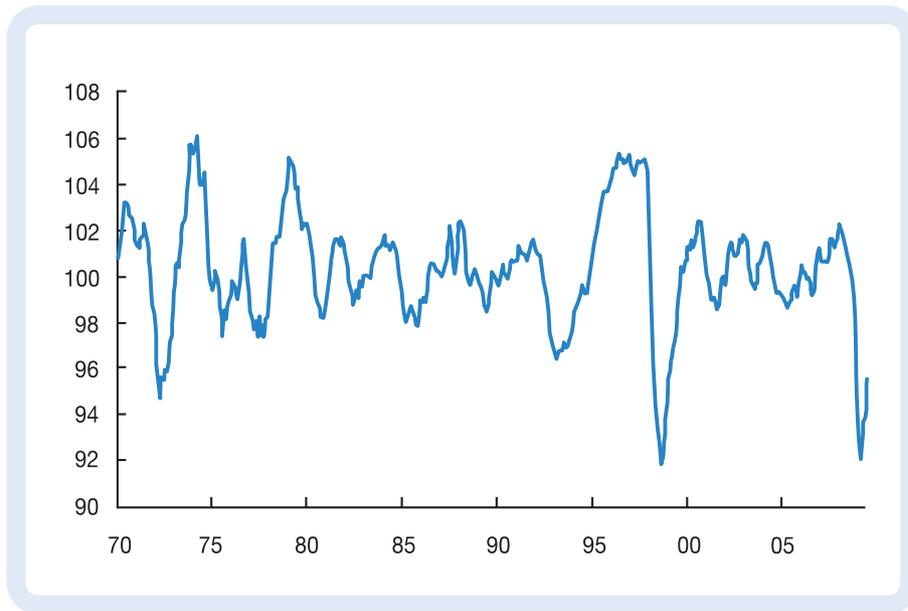


주 : t시점은 80년 3/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 1 국내경기 저점 :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

글로벌 금융위기(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급락세를 보인 국내경제가 2009년 2월을 저점으로 상승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09년 2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1월 102.2를 기록한 이후 하강하여 2009년 2월 중 92.0를 기록한 후 3월부터 상승하여 6월 현재 95.4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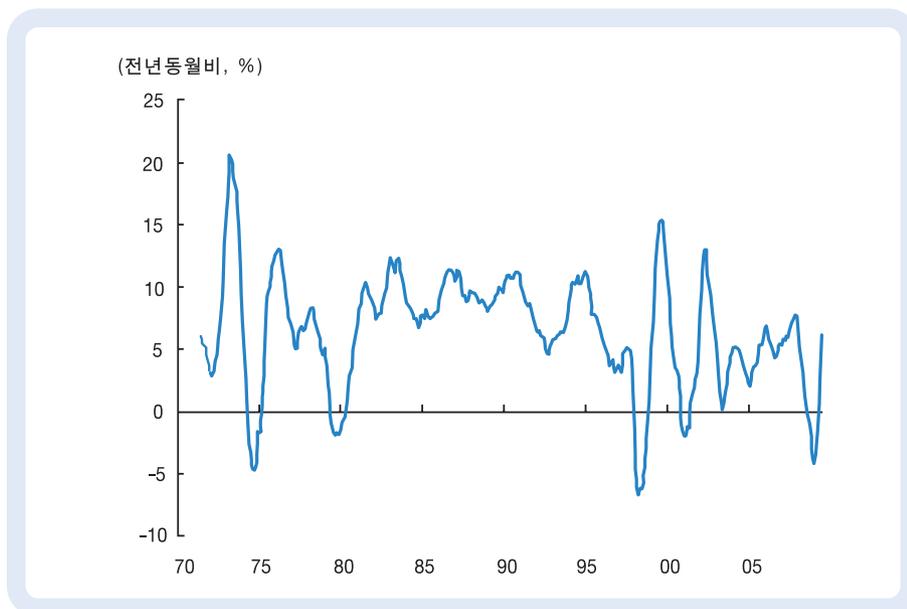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8년 4/4분기 이후 급락세를 보인 경제성장률도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2/4분기 들어 감소세가 크게 축소되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 중 국내경제성장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3.4% 및 -4.2%였으나 금년 2/4분기에는 -2.6%로 감소 폭이 줄었다.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을 보면 금년 들어 경기상승탄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다. 2008년 4/4분기 중 전기대비 -5.1%였던 국내경제는 2009년 1/4분기와 2/4분기 중 각각

0.1%와 2.3%성장으로 경기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회복을 선반영하는 주식시장도 급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8월말~2009년 2월말 기간 중 27.9%가 하락한 종합주가지수는 금년 3월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46.5%(2009년 2월말~2009년 7월말)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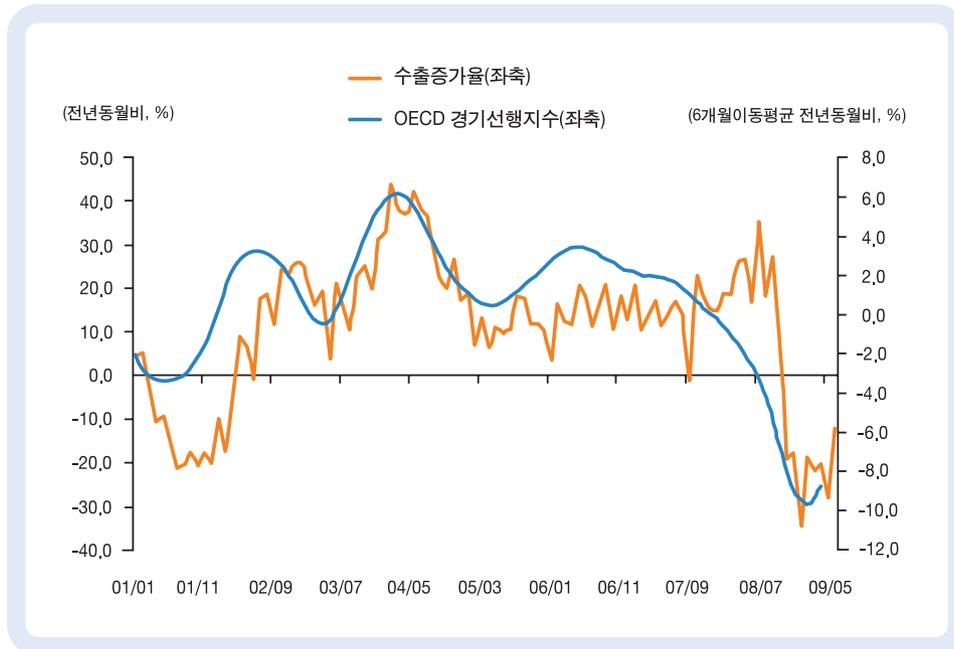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통계청의 경기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국내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3개월 내지 6개월 후의 경제를 예고해주거나 향후 경기국면과 경기 전환점예측에 이용되는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가 2008년 12월을 저점으로 큰 폭의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수출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OECD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경기를 이끌고 있는 수출도 회복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OECD 경기선행지수와 우리나라 수출액 증가율 추이〉



자료: Datastream.

OECD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선진국의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정책과 대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의 효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GDP대비 2.0%(재정지출 1.3%, 감세 0.7%)의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2009년 7월 4일 현재 702억 달러 집행). 일본과 중국도 2009년 중 각각 GDP대비 2.4% 및 3.1%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에 따라 금년 1/4분기 들어 세계경제가 저점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경제는 2009년 2/4분기 들어 빠르게 반등하여 금년 3/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및 감세 규모〉

(단위: GDP대비,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재정지출	1.3	1.0	0.4	-0.3	0.9	0.7	2.3	1.7	3.1	2.7
사회간접자본	0.2	0.3	0.2	-0.1	0.4	0.4	1.3	1.6	2.9	-
중소기업지원	-	-	-	-	0.3	0.2	0.1	-	-	-
사회안전망	0.5	0.1	0.1	-	-	-	0.7	0.1	-	-
기타	0.5	0.6	0.2	-0.2	0.2	0.0	0.2	-	0.2	-
감세	0.7	0.8	1.0	0.2	0.6	1.3	0.1	0.1	-	-
개인소득세	0.3	0.6	0.2	0.2	0.5	1.0	-	-	-	-
간접세	-	-	0.8	-	-	-	-	-	-	-
법인세	0.4	0.2	-	-	0.1	0.2	0.1	-	-	-
총계	2.0	1.8	1.4	-0.1	1.5	2.0	2.4	1.8	3.1	2.7

주: 1) 자동안정화 기능 및 기타 비재량요인(금융부문 이익급감,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재정수지 변동을 제외한 재량적 재정정책 규모.

2) 금융부문 지원규모 제외.

자료: The State of Public Finances(IMF, 2009.4)

미국의 경기부양법안 집행 계획

(단위: 10억달러)

	2009	2010	2011	2013~19
집행계획	184.9	399.4	134.4	68.5
실제 집행액	70.2	-	-	-

주: 1)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2) 회계연도 기준(전년 10월~금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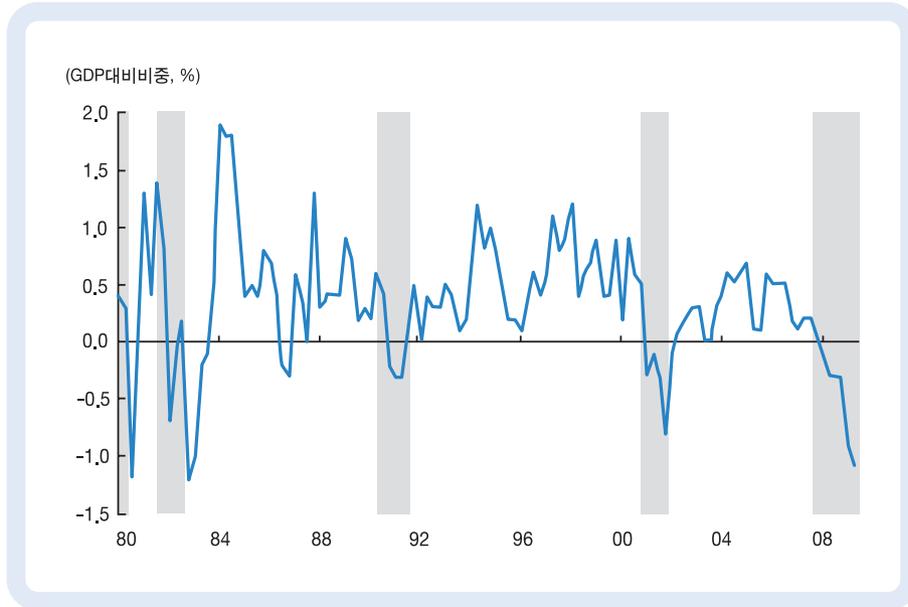
3) 집행계획은 미 의회예산국 추정치.

4) 2009. 7. 24일 기준.

자료: CBO.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 중 각각 -5.4%와 -6.4%(전기비 연율 기준) 성장한 미국경제는 금년 2/4분기 중 -1.0%로 감소세가 완화되었다. 2/4분기 들어 미국경제의 성장률 감소세가 완화된 주요 요인으로는 첫째,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정부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상승(2009년 1/4분기 -2.6%p→2/4분기 5.6%p)하고 둘째, 재고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생산이 증대된 점을 들 수 있다.

〈미국 GDP대비 재고증감 비중〉



주: 음영부분은 경기침체기.
자료: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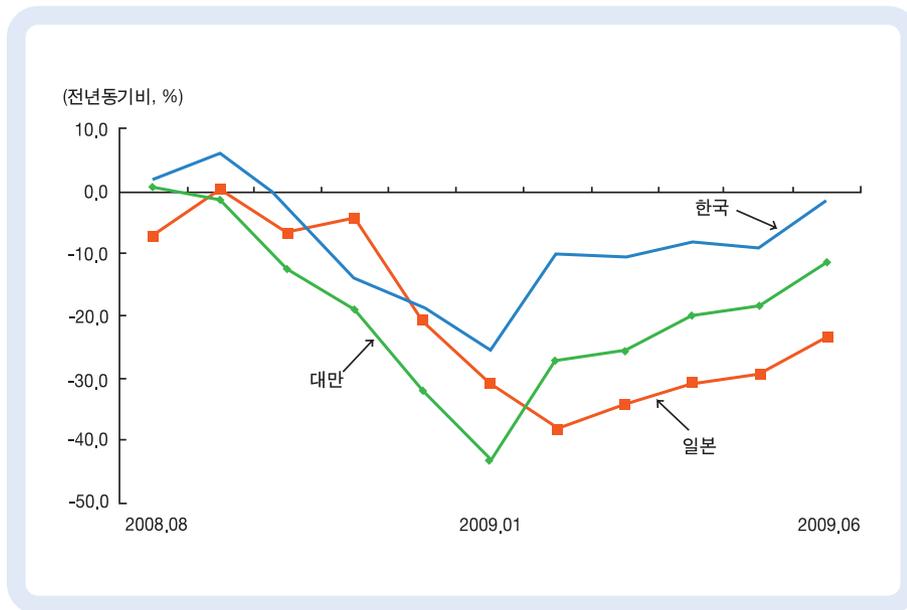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1/4분기 기간 중 수요 냉각으로 재고가 급증하자 이를 줄이기 위해 미국제조업체들은 제조업가동률을 빠르게 낮추었다. 그런데 2/4분기에는 반대로 재고가 적정수준을 하회하게 되자 적정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을 증가시켰는데, 이 때문에 재고의 미국경제 성장기여도가 크게 개선되었다(2009년 1/4분기 중 -2.36%p에서 2/4분기 중 0.8%p로 축소). 셋째, 신용경색의 완화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2009년 1/4분기 중 -4.7%p에서 2/4분기 중 -0.9%p로 축소).

한편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또 다른 엔진인 중국경제도 금년 2/4분기 이후 성장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 중 각각 6.8%, 6.1% 성장한 중국경제는 2009년 2/4분기 중 7.1%로 성장세가 높아졌다.

▶▶ 2 우리나라와 경쟁국의 경기회복세 비교 :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

우리나라의 경기회복 속도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월 중 전년동월대비 25.5%가 감소한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은 금년 6월에는 1.2% 감소로 감소세가 크게 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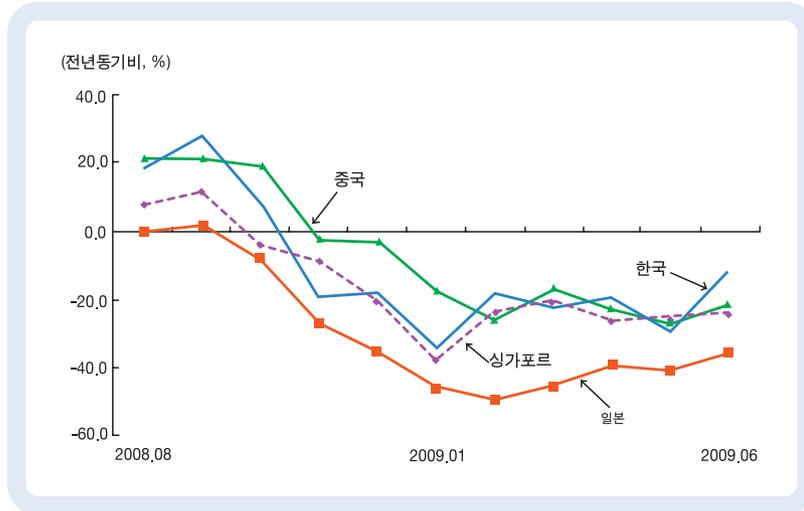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Datastream.

반면 일본의 산업생산은 2009년 1월 중 전년동월대비 30.9% 감소에서 금년 6월에도 23.4% 감소하여 산업생산 감소 폭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대만도 2009년 1월 중 43.3% 감소에서 6월 중 11.4% 감소하여 산업생산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한편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의 수출동향을 비교해 보면 2009년 1월 중 전년동월대비 34.5% 감소한 우리나라 수출이 금년 6월 중 12.4% 감소로 감소세가 크게 축소되었다. 반면에 일본의 수출은 2009년 1월 중 45.7% 감소에서 금년 6월 중에도 35.7% 감소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수출도 2009년 1월 중 17.5% 감소에서 6월 중 21.4% 감소로 감소 폭이 줄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Datastream.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 생산의 회복속도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원인으로서는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특히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소재업종(철강 및 석유화학 등)의 수출환경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둘째, 가전제품구매지원정책(중국)과 디지털TV 수요의 확대로 일부 전기전자부품의 수출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점, 셋째, 구매 후 서비스(AS) 조건의 강화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자동차 업종)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품목의 수출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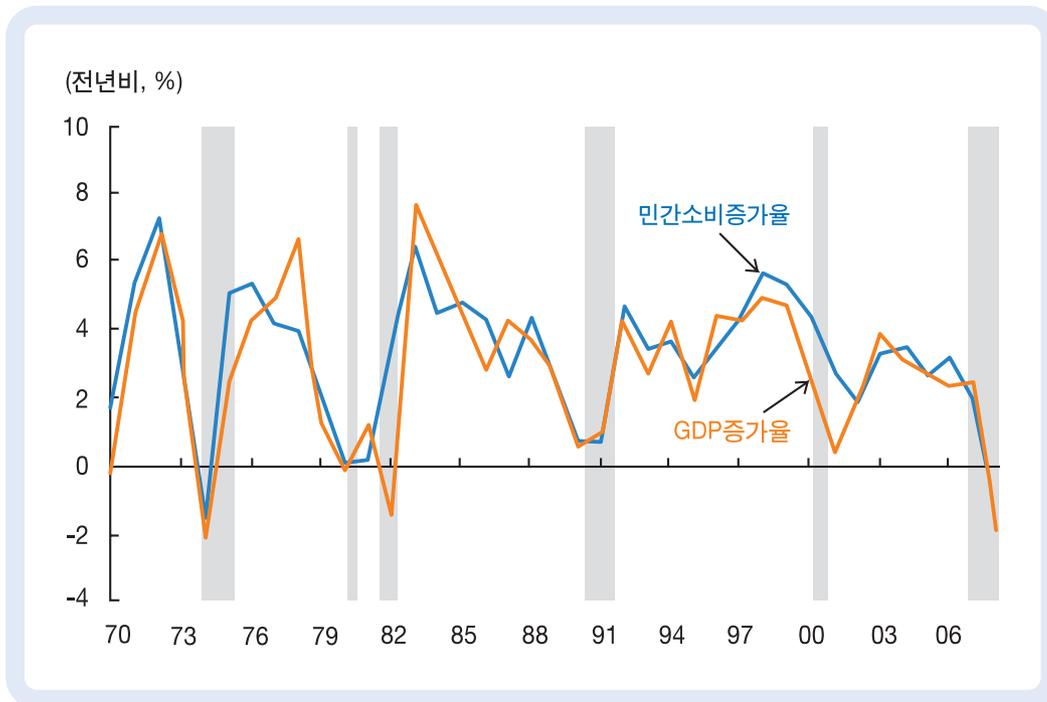
품 목	개 선 요 인
무선통신기기	-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2008년 : 25.3% → 2009. 2/4분기 : 31.2%
액정 디바이스	- 대형 LCD세계시장 확대, 2009. 1 : 25.5억달러 → 2009. 6 : 53.6억달러 - TFT LCD 가격상승(32인치), 2009. 1 : 163억달러 → 2009. 7 : 205억달러
반도체	- Nand Flash 가격상승(8G, \$/개), 2008. 12 : 1.16달러 → 2009. 7 : 3.68달러
철강	- 철강 가격지수 상승(CRU), 2009. 4 : 130 → 2009. 7 : 143
석유화학	- 가동률 상승, 2008. 10~11 : 70% → 2009. 7 : 98%
자동차	- 주요시장 점유율 상승(%) • 미국시장, 2008. 1~5월 : 5.0% → 2009. 1~5월 : 7.3% • 중국시장, 2008. 1~5월 : 6.4% → 2009. 1~5월 : 7.6% • 서유럽시장, 2008. 1~5월 : 3.1% → 2009. 1~5월 : 3.6%

자료: 지식경제부, (2009년 수출입동향, 2009. 7)

▶▶ 3 우리나라 경기회복 양상 : '루트형($\sqrt{\quad}$)' 상승형태 예상

향후 우리나라 경기회복세는 경기회복 초기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첫째,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지 못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수출여건 개선 속도가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가계는 부채조정을 위한 저축증가와 고용부진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민간소비와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Datastream.

미국의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해 미국경제는 민간소비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빠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금년 4/4분기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국들의 출구전략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이 2008년 8월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동성공급을 확대한

결과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 예치금인 은행지준을 대폭 확대하였고, 특히, 의무지준을 초과한 초과지준이 금년 7월초 7,43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금융상황이 더욱 안정화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초과지준을 이용하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때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연준은 중장기 물가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기가 긴 자산을 담보로 공급한 유동성에 대해 해당자산의 만기도래 시 만기연장 억제, 금융기관들의 중앙은행 지준예치금에 대한 이자율 조정, 연준보유 자산매각(재무부증권, 주택담보부증권 등) 및 정책금리 인상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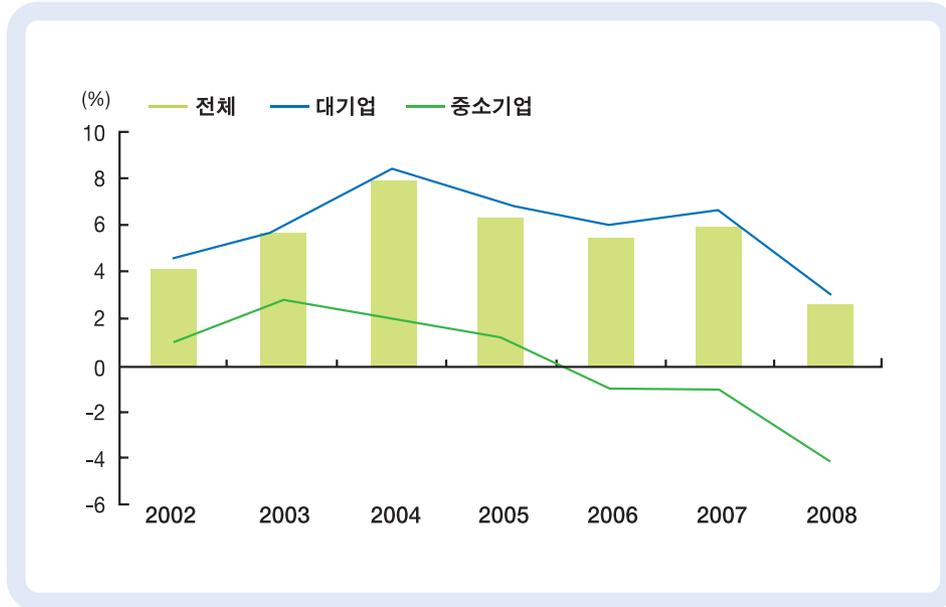
〈미국의 출구전략 윤곽〉

	주요 내용
유동성 회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가 긴 자산을 담보로 공급한 유동성은 해당 자산 만기 시 만기연장 억제 - 금융기관들의 중앙은행 지준예치금에 대한 이자율 조정 - 국채전문 딜러, 정부보증 주택금융공사(GSE), 기타 금융기관들과의 역환매계약을 통해 연준 보유한 자산 매각 - 연준 보유한 장기증권(재무부증권 등) 매각
금리인상 단계 (2010년 상반기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수준을 최대한 유지하고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금리 인상

자료: 국제금융센터, (이슈분석, 200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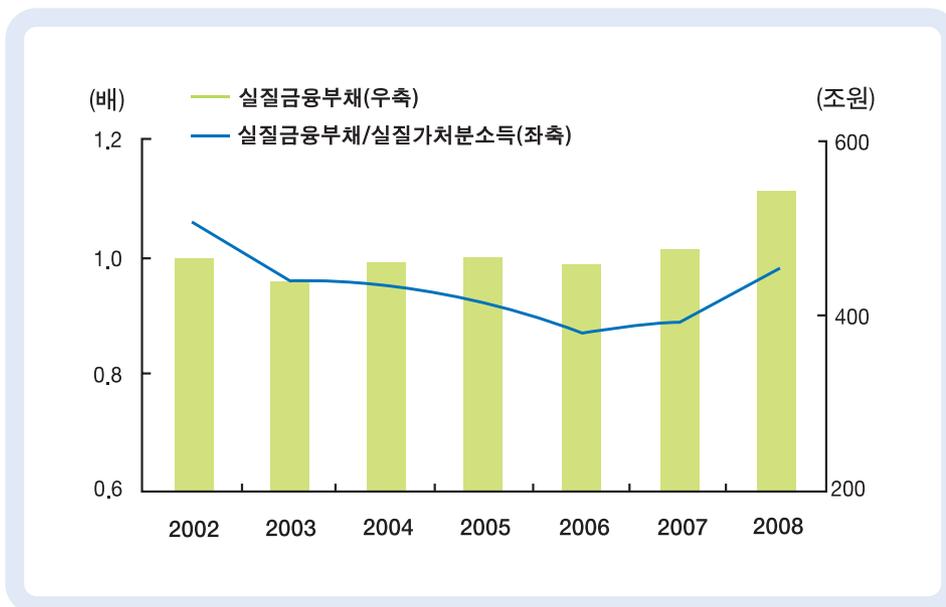
셋째, 우리나라 내수회복세는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수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국내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출 대기업과 내수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보인 반면에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내수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채산성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내수 중소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와 고용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여 소비여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고용악화로 인한 가치분소득 증가세의 둔화로 가계의 실질금융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잉여금융자산은 축소되어 소비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매출액 순이익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기업경영 분석 각호)

〈가계의 실질금융부채/실질가처분소득 배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09. 4. 28.

마지막으로 재정에 의한 성장기여도의 약화를 들 수 있다. 2009년 상반기 중 국내경제는 재정의 조 기집행으로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재정의 집행여력 약화로 인 해 재정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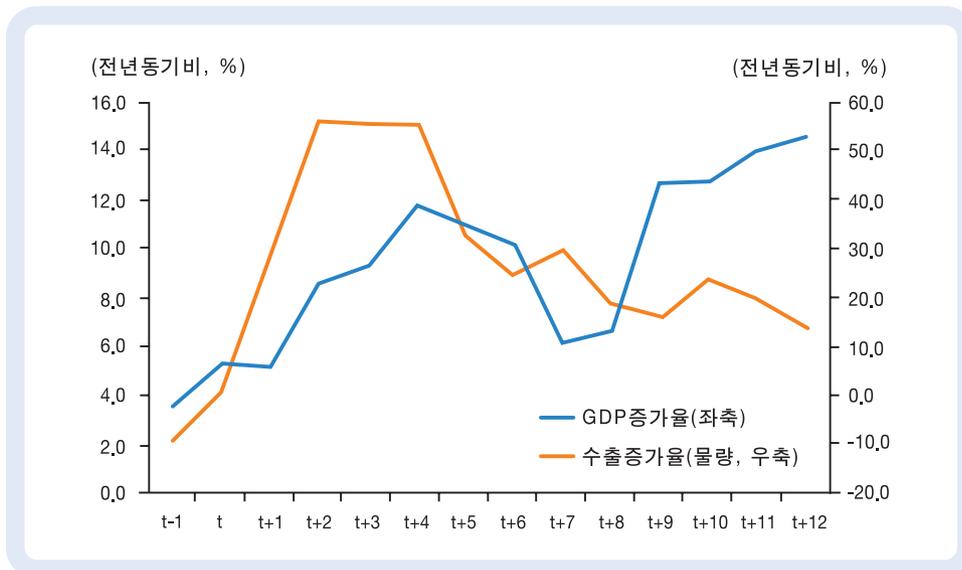
〈성장에 대한 정부부문(소비+투자) 기여도〉

	2007	2008					2009, 1/4
			1/4	2/4	3/4	4/4	
GDP 성장률(%)	5.1	2.2	5.5	4.3	3.1	-3.4	-4.2
정부 기여도(%p)	0.9	0.5	0.2	0.5	0.6	0.6	1.9

자료: 기획재정부.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기상승국면에서 경기회복 양상을 보면 크게 네가지 행태로 분류할 수 있 다. 첫째는 'W형' 경기회복이다. 이는 1973년 제 1차 석유위기 직후인 1975년 6월부터(제 2순환 경기상 승국면) 나타난 경기양상이다. 이런 상황은 선진국의 무리한 조기 출구전략, 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상승 등이 나타날 경우 선진국의 성장이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우리 수출이 다시 침체되면서 국내 경제가 상승기조에서 일시적으로 하강하는 'W형' 경기회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나 그 가능성은 높아 보 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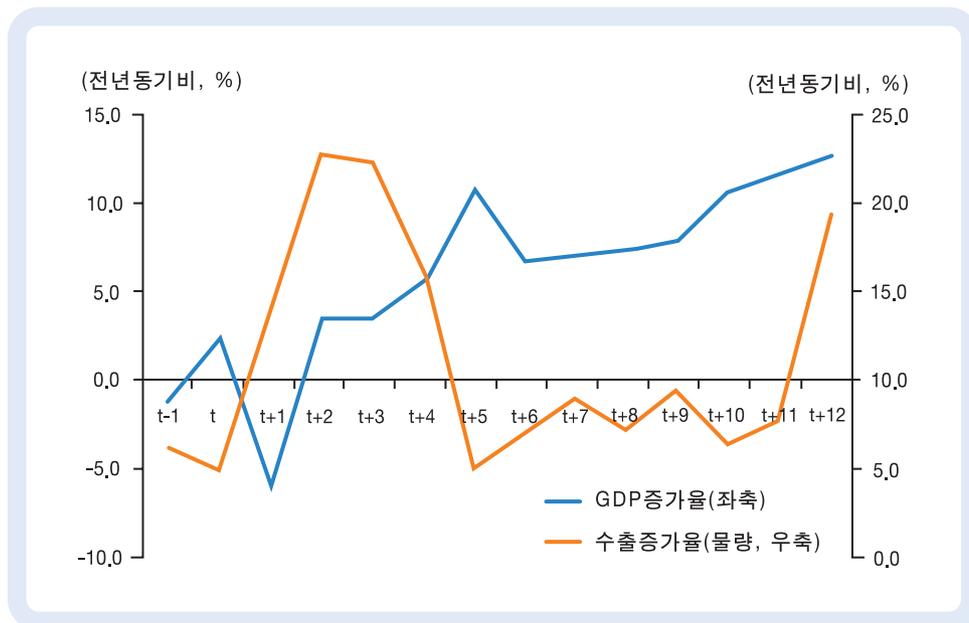
〈1차 석유위기(1975. 2/4분기) 이후 우리나라 경기회복 양상〉



주: t시점은 75년 2/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둘째, ‘루트형($\sqrt{\quad}$)’ 경기회복이다. 이는 제 2차 석유위기 직후인 1980년 9월부터(제 3순환 경기상승 국면) 나타난 경기양상이다. 경기회복 초기국면에서 경기가 급반등 후 일정기간 완만히 상승하는 양상이다. 이는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으로 국내경기가 초기에 빠르게 회복되지만 일시 회복된 후 점진적인 출구전략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해지는 경우이다. 향후 국내경제는 이 같은 경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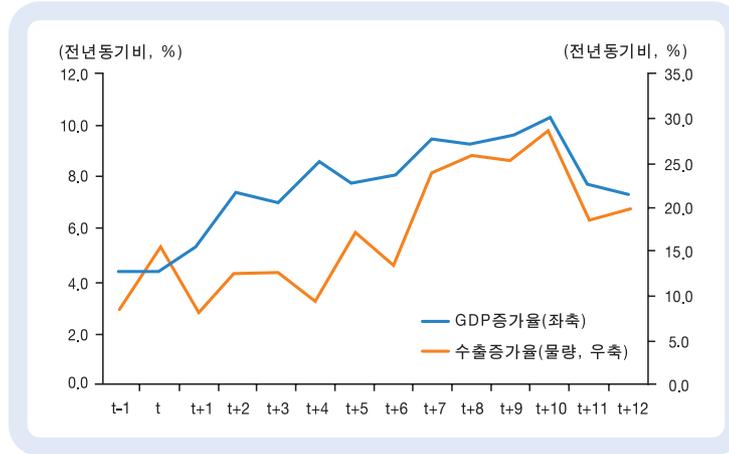
〈2차 석유위기(1980. 3/4분기) 이후 우리나라 경기회복 양상〉



주 : t시점은 80년 3/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셋째, ‘바나나형’ 경기회복이다. 이는 1993년 1월(제 6순환 경기상승국면) 이후 나타난 경기양상이다. 경기회복국면에서 경기가 완만하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경우이다. 제 2차 엔고로 수출이 크게 호조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주택 500만호 건설의 부작용 등)으로 국내경제가 매우 완만하게 장기간 상승세를 보였다. 향후 국내경기가 이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두 번째로 높다.

〈제2차 엔고 이후(1993. 1/4분기) 우리나라 경기회복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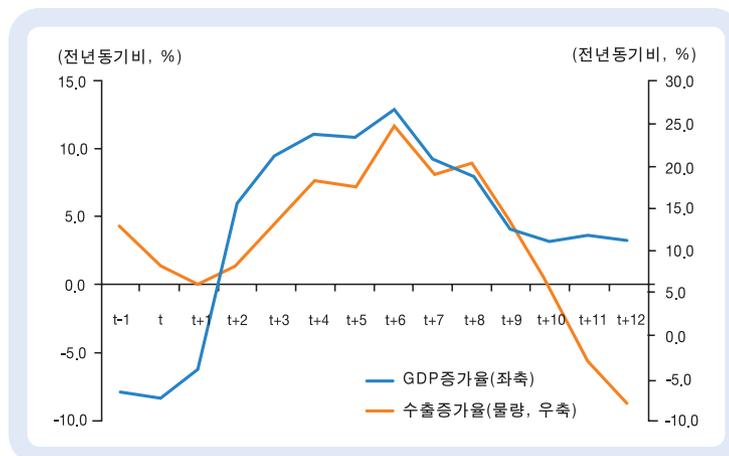


주 : t시점은 93년 1/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마지막으로 ‘V형’ 경기회복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1998년 8월) 제 7순환 경기상승국면에서 나타난 경기양상으로 경기회복 초기국면부터 경기가 급격히 반등하는 경우이다. 이 당시 원화가치 급락에 따른 수출의 가격경쟁력 급상승, 세계경제여건 호조, 구조조정의 진전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경제는 빠르게 반등세를 보였다.

향후 국내경기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가장 낮아 보인다. 최근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경쟁국에 비해 경제 회복세가 빠른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지원, 선진국의 정책공조 등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가질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이 약화될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세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며 정책적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 naboo

〈외환위기(1998. 3/4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회복 양상〉



주 : t시점은 98년 3/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